



베이트 메누카

베이트 메누카 בֵּית מְנוּכָה resting-place

שלום שָׁלוֹם

9월 26일 새해를 시작으로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내고, 몇일 전 우기를 알리는 이른비가 온 이스라엘을 적셨습니다. 건기를 지나며 쌓인 먼지 가득한 대지를 구석구석 적시며 씻어내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쌓여있는 분쟁을 씻어내고 평화로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한 이스라엘은 전세계 순례객들로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이 땅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분쟁이 지속되는 이곳에 뿌려지는 예배의 씨앗이 평화의 열매로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성경의 땅을 다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등불인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재조명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에는 순례객들 뿐 아니라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박옥수)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해 문화공연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eace Concert'를 개최하고 초중고등학교들을 찾아가 K-Pop 과 태권도 등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우기 한국의 하나의 기성교회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현지 메시아닉 교회들에도 찾아가 지도자들과 미팅을 하는 등 자신들을 알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선교사 모임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의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속해 있는 메시아닉 교회들에 그들의 이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11월 1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치루어진 4번의 총선 (2019년 4월, 9월, 2020년 3월, 2021년 3월)으로 전 총리였던 네타냐후 총리를 물리치고 세워졌던 연립정부가 결국 4년의 임기 중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해산되었고, 그 결과 또 다시 총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 총리인 예쉬 아티드 당의 야이르 라피드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대 세력과 전 총리인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연대 세력의 박빙 승부에서 네타냐후 측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피로감에 더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삶에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이스라엘 군인의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Lion's Den (8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새로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대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으로 성서시대 세겜 지역인 나블루스 도시를 비롯해서 요단강 서안지구 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정부가 잘 구성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주 사뵈마다 벤-예후다 거리에서 진행되는 거리찬양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비록 매주 매의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정통 종교인도 있지만, 찬양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순례객들과 많은 크리스천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소리가 이 땅과 찬양을 듣는 무리들에게 심겨져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성지에서 드리는 예배



신년에 사과에 꿀 찍어먹기



삭개오 나무 방문 & 삭개오 집에서 예배



구원파 콘서트 포스터

예루살렘중앙교회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던 중에 ‘시므온과 안나의 집’ 문화센터 예배실을 매주 빌려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101010기도’를 하며 계속해서 고정적인 예배처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예중교회 청년들이 새학기가 시작되며 다시 이스라엘로 입국했습니다. 학기 시작 전 청년들과 함께 광야투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잘 준비되어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이번 기도편지에서는 특별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학생비자로 계속 체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계속해서 다른 비자 카테고리를 알아보던 중 한 개신교 단체를 통해 종교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단체를 통해 내무부에 서류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비자 만료일이 내년 1월 8일이기에 그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출국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3인 큰 아이 예서 학기가 내년 6월까지 이기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비자 카테고리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무부에서 서류 통과가 잘 되어 온 가족이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요청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이스라엘의 정부가 온전히 구성되어 안정을 찾게 하시고, 나라안에 분쟁과 두려움과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2. 예루살렘 중앙교회의 예배처소를 찾게 하셔서 다음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주옵소서.
3. ‘거리찬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 일하여주옵소서. 매주 감시하는 정통종교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4.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교회와 한인교회들에 분별의 영을 더하시며 이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든든히 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5. 메시아닉주의자들이 세운 ‘마코르 하티크바’가 계속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재정과 교육의 전문성도 채워져서 이 땅에 믿음의 학교로 믿음의 다음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 하옵소서.
6. ‘예루살렘중앙교회’와 ‘베이트메누카’를 통하여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7. 종교비자가 잘 진행되어 비자 만료일(1월8일)전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서가 고3 마지막 학년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8. 예서와 예안이에게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생활과 학업에도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9.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벤-에후다 거리찬양



새 예배 처소인 ‘시므온과 안나의 집’에서



예중 청년들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베이트 메뉴카’

이스라엘 현지 전화번호: (+972) 053-774-8085

한국 070 전화번호: (+82) 070-4064-8085

카카오톡 아이디: bmo8080

이메일: bmo8080@hotmail.com

이스라엘 주소: 2/7 E'tsel st., Franch Hill, Jerusalem 9785401, Israel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165-333583 (전병규)

